

大東文化研究叢書Ⅳ

儒教의 民本思想

刑 德 周 著
安 炳 周 著

刑 德 周 著
六經 垂憲萬世
天地 道冠古今

唐吳道子畫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大東文化研究叢書 IV

儒教의 民本思想

—君主·民本으로부터 民主에로의
轉換可能性의 摸索—

安 炳 周 著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著者略歷

1933년 서울出生.

成均館大學校 東洋哲學科 졸업, 동大學院 哲學博士. 成均館大學校 儒學大學長, 養賢齋 典齋, 서울女子大學 中央大學校 誠信女子大學校 講師, 日本 東京大學 外國人研究員, 筑波大學 外國人教授역임.

現 成均館大學校 教授, 동 大東文化研究院 院長, 儒敎學會 會長, 민족문화추진회 및 서울大學校 講師, 成均館 儒敎文化研究委員會 委員長

著譯書: 『儒學原論』(成大出版部, 共著), 『韓國의 思想家 12人』(玄岩社, 共著), 『朝鮮의 朱子學과 日本의 朱子學(上)』(日本 明德出版社, 共譯), 『新譯四書 孟子』(玄岩社, 共譯) 『論語』(徽文出版社, 譯註) 『荀子』(三省出版社, 抄譯)

儒敎의 民本思想 [大東文化研究叢書Ⅳ]

1987年 4月 25日 印刷

1987年 4月 30日 發行

發行人: 金 龍 勳

著者: 安 炳 周

編輯人: 安 炳 周

發行處: 成均館大學校出版部
(登錄 1975. 5. 21 第217號)

印刷處: 乙 文 社

定價 6,000원

朱子研究所惠存

安

炳周
敬贈

目 次

(I) 序	11
I. 問題의 提起	11
II. 研究의 視角, 方法 및 範圍	15
(II) 本 論	23
第1章 儒教의 人間觀과 民本思想	23
I. 머리말	23
II. 天과 人間	23
(1) 中國古代의 天信仰 / 23	
(2) 人間의 發見 — 孔子의 人間觀(I) — / 29	
III. 至誠救世의 爲民意識과 切於救民의 民本思想	45
(1) 至誠救世의 爲民意識 — 孔子의 人間觀(II) — / 45	
(2) 切於救民의 民本思想과 孟子의 人間觀 / 49	
IV. 맺음말	56

第2章 儒教政治論과 民本思想	61
I. 머리말	61
II. 政治의 理想	62
(1) 人道와 平和 / 62	
(2) 大同思想과 方法的 差別愛主義 / 67	
(3) 平等의 原理와 差別의 原理 / 73	
III. 政治體制와 民本思想	81
(1) 人權과 民本 / 81	
(2) 德治와 尊賢(敬臣) / 87	
IV. 本原儒家의 政治論과 民本思想	92
(1) 孔子의 正名論과 民本思想 / 92	
(2) 孟子의 革命論과 民本思想 / 98	
V. 正義具現理念의 儒敎的 展開	104
(1) 名分論的 展開 / 104	
(2) 革命論的 展開 / 108	
VI. 맺음말	112
第3章 朱子의 公義的 民本思想	117
I. 머리말	117
II. 司馬光 「疑孟」에 대한 朱子의 尊孟辨	120
III. 李靚 「常語」에 대한 朱子의 尊孟辨	126
IV. 朱子 尊孟의 근거로서의 民本思想	132
V. 맺음말	135

第4章 王廷相의 氣哲學과 民本思想	141
—氣哲學의 思想史的 意義—	
I. 머리말	141
II. 中國 ‘氣’ 思想의 文獻史的 概觀	145
III. 王廷相의 氣哲學.....	153
(1) 王廷相의 生涯와 著作 / 153	
(2) 王廷相의 氣哲學의 體系 / 158	
(3) 王廷相의 氣哲學과 公義的 民本思想 / 171	
IV. 맺음말	174
第5章 黃宗羲의 公利的 民本思想	177
I. 머리말	177
II. 黃宗羲의 氣哲學.....	178
(1) 黃宗羲의 生涯와 著作 / 178	
(2) 黃宗羲의 氣哲學 / 191	
III. 『明夷待訪錄』의 民本思想	206
(1) 『明夷待訪錄』에 대하여 / 206	
(2) 『明夷待訪錄』의 公利的 民本思想 / 215	
IV. 맺음말	236
—君主·民本으로부터 民主에로의 轉換可能性의 摸索(I)—	
第6章 公義·公利兼合의 民本思想.....	243
—李栗谷·趙重峰의 경우—	

I. 머리말	243
II. 李栗谷의 改革主義와 理氣妙合의 哲學	244
(1) 氣哲學의 意味 / 244	
(2) 時宜와 變通 / 250	
(3) 栗谷改革主義의 實學的 性格 / 255	
(4) 理氣妙合의 哲學 / 259	
III. 趙重峰의 改革主義와 民本思想	261
(1) 趙重峰의 生涯 / 261	
(2) 『重峰東還封事』에 대하여 / 267	
(3) 『重峰東還封事』의 改革主義와 民本思想 / 271	
IV. 맺음말	278
—君主·民本으로부터 民主에로의 轉換可能性의 摸索(II)—	
(III) 結	285
參考文獻	297
索引	305
人名 / 305	
書名 / 311	
事項 / 314	

序 文

儒敎의 開祖 孔子의 시대로부터 서양의 충격(Western Impact)으로 인해 유교의 근본 자체가 동요하기 시작할 때까지의 동아시아 사회의 정치 체제는 君主制이었다. 그러나 君主制 原理가 지배하는 정치체제하에서도 유교의 民本思想의 전통은 연면히 이어져 왔다. 爲民(for the people)을 더없이 강조한 유교의 民本政治理念은, 있어 왔던 정치사회의 현실적 역사 속에서 그 지배 원리를 위해서만 봉사해 온 유교가 존재하기도 한 가운데 끊임없이 浮沈하면서도 그 理念 자체의 생명과 활력을 꾸준히 지켜 왔다. 至誠救世의 爲民意識은 孔子에서 이미 그 萌芽를 찾아볼 수 있거니와 특히 孟子의 切於救民의 心情은 儒敎思想의 핵심에 民本思想이 위치치 워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明末清初의 사상가로 ‘중국의 루소’라는 평가를 후세에 받고 있는 黃宗羲의 『明夷待訪錄』의 民本思想에서는 孟子 이래의 儒敎的 革命論의 전통을 확대 중시하여 “(殷周革命을 이룩한 周의) 武王은 聖人이고 (그것을 追認하고 合理化한) 孟子의 말은 聖人의 말이다” 라고 하였다.

君主制度가 지배하던 시대에 생을 누렸던 黃宗羲의 사상에는, 그러나 한계가 있다. 그런 限에 있어서는 黃宗羲의 사상도 ‘君主·民本’ 사상이지 ‘民主’ 사상은 아니다. 하지만 그 사상의 過激性 속에 ‘君主制原理’ 그 자체를 崩壞케 하는 데로 이끌 정도의 理論的 萌芽가 있어 民主에로의 준비 기능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君主·民本으로부터 民主에로의 轉換可能性을 모색하려는 視角에 있어서는 黃宗羲는 매우 중요한 과도기적 사상가임에 틀림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사회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체제의 수립은

儒敎의 民本思想의 展開過程(自轉過程) 속에서의 質的轉換을 통해 이루어지는 아니하였다. 이것은 역사의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君主·民本으로부터 民主에로의 轉換可能性’을 스스로의 사상 속에 胞胎하였던 儒敎의 民本思想의 전통의 抹殺이 될 수는 없으며, 새 시대의 正義具現을 위한 發言資格의 剝奪이 되어서는 더더구나 不可하다.

유교의 역사는 理論補完의 역사이고, 그것은 항상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時中的인 양상을 지녀 왔으며, 때론 사자(儒敎)의 뱃 속에 토끼가 여러 마리 들어 앉게 스스로의 쪽으로 다른 외래 사상을 포용하기도 하였다. 이제 이 시대의 요청에 맞도록 ‘民主’라는 토끼를 사자(儒敎의 民本思想)의 뱃 속에 확실하게 포용할 수만 있다면 儒敎의 民本思想은 현대에 있어서도 生動性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傳統的 儒敎民本思想의 展開의 역사는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 여기에 또한 儒敎의 民本思想의 現代的意義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종래의 儒學者들 가운데 經典에 보이는 民本主義의 語句들을 입으로만 의우면서 사실상 民衆의 존재를 망각하다시피 한 사람들이 없지 않았던, 아니 상당수 있었던 사실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그러나 전부가 그렇지는 아니하였다. 예를 들어 至誠救民을 本務로 삼고 積弊盡革을 목표로 삼았던 李栗谷의 民本思想에서는 민중(民)에 대한 認識은 보다 근원적인 것이었고 보다 철학적인 것이었다. 栗谷의 ‘理氣之妙’의 철학은 구체적으로는 ‘公義·公利兼合의 民本思想’ 속에 投影되고 있다. 옳고(是) 그름(非)의 是非의 문제와 이로움(利)과 해로움(害)의 利害의 문제의 조화로운 兼合 與否에대한 判定者의 자리에 민중(民)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백성들에게 편리한 것이 곧 옳은 것(是)이고 또한 이로운 것(利)이라고 栗谷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讀者諸賢 가운데 우선 이 책의 목차만이라도 먼저 훑어 보아준 분이 있다면 著者의 이 저술의 동기가 바로 지금까지 서술한 것을 밝히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저자 자신의

생각의 동요가 없지도 않았다. 動搖의 振幅이 차차 좁혀져 이제 세상에 내어놓는 정도로 생각이 굳어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다. 저자의 게으른 성품도 그 一因이 되었다.

이제 이 작은 책자가 꾸며지기까지에 저자에게 좋은 충고와 편달을 아끼지 않은 몇 분에 대한 저자의 감사의 念은 오래도록 마음 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고집스럽게 漢字를 줄이지 않은 난삽한 문장의 교정과 권말 색인의 작업을 위해 수고한 大東文化研究院의 金錫起 연구원보를 비롯한 조교들, 성균관대학교 李海英 강사, 그리고 어려운 원고에다 몇번씩의 수정작업을 마다 않고 맡아서 이 책을 제작해 준 乙文社의 여러 분께 한꺼번에 감사드린다.

끝으로 附言할 것이 있다. 이 책을 저자를 위해 內助가 컸던 아내에게 바친다.

1987年 3月 30日

以健齋에서 著 者 識

目 次

(I) 序	11
I. 問題의 提起	11
II. 研究의 視角, 方法 및 範圍	15
(II) 本 論	23
第 1 章 儒教의 人間觀과 民本思想	23
I. 머리말	23
II. 天과 人間	23
(1) 中國古代의 天信仰 / 23	
(2) 人間의 發見 — 孔子의 人間觀(I) — / 29	
III. 至誠救世의 爲民意識과 切於救民의 民本思想	45
(1) 至誠救世의 爲民意識 — 孔子의 人間觀(II) — / 45	
(2) 切於救民의 民本思想과 孟子의 人間觀 / 49	
IV. 맺음말	56

第2章 儒教政治論과 民本思想	61
I. 머리말	61
II. 政治의 理想	62
(1) 人道와 平和 / 62	
(2) 大同思想과 方法的 差別愛主義 / 67	
(3) 平等의 原理와 差別의 原理 / 73	
III. 政治體制와 民本思想	81
(1) 人權과 民本 / 81	
(2) 德治와 尊賢(敬臣) / 87	
IV. 本原儒家의 政治論과 民本思想	92
(1) 孔子의 正名論과 民本思想 / 92	
(2) 孟子의 革命論과 民本思想 / 98	
V. 正義具現理念의 儒敎의 展開	104
(1) 名分論의 展開 / 104	
(2) 革命論의 展開 / 108	
VI. 맺음말	112
第3章 朱子의 公義의 民本思想	117
I. 머리말	117
II. 司馬光 「疑孟」에 대한 朱子의 尊孟辨	120
III. 李觀 「常語」에 대한 朱子의 尊孟辨	126
IV. 朱子 尊孟의 근거로서의 民本思想	132
V. 맺음말	135

第4章 王廷相의 氣哲學과 民本思想	141
—氣哲學의 思想史的 意義—	
I. 머리말	141
II. 中國 ‘氣’ 思想의 文獻史的 概觀	145
III. 王廷相의 氣哲學.....	153
(1) 王廷相의 生涯와 著作 / 153	
(2) 王廷相의 氣哲學의 體系 / 158	
(3) 王廷相의 氣哲學과 公義的 民本思想 / 171	
IV. 맺음말	174
第5章 黃宗羲의 公利的 民本思想	177
I. 머리말	177
II. 黃宗羲의 氣哲學.....	178
(1) 黃宗羲의 生涯와 著作 / 178	
(2) 黃宗羲의 氣哲學 / 191	
III. 『明夷待訪錄』의 民本思想	206
(1) 『明夷待訪錄』에 대하여 / 206	
(2) 『明夷待訪錄』의 公利的 民本思想 / 215	
IV. 맺음말	236
—君主·民本으로부터 民主에로의 轉換可能性의 摸索(I)—	
第6章 公義·公利兼合의 民本思想.....	243
—李栗谷·趙重峰의 경우—	

I. 머리말	243
II. 李栗谷의 改革主義와 理氣妙合의 哲學	244
(1) 氣哲學의 意味 / 244	
(2) 時宜와 變通 / 250	
(3) 栗谷改革主義의 實學的 性格 / 255	
(4) 理氣妙合의 哲學 / 259	
III. 趙重峰의 改革主義와 民本思想	261
(1) 趙重峰의 生涯 / 261	
(2) 『重峰東還封事』에 대하여 / 267	
(3) 『重峰東還封事』의 改革主義와 民本思想 / 271	
IV. 맺음말	278
—君主·民本으로부터 民主에로의 轉換可能性의 摸索(II)—	
(III) 結	285
參考文獻	297
索引	305
人名 / 305	
書名 / 311	
事項 / 314	

序

- I. 問題의 提起
- II. 研究의 視角, 方法 및 範圍